



[뉴스] 기아차 CEO 인베스트 데이 '플랜 S' 공개 02



Economy

코스피	2238.88 (+9.62)	코스닥	678.71 (-0.51)
금리 (미국 3년)	1.39 (-0.03)	환율 (원/달러)	1156.10 (+0.10) (14일)

대학 등 비영리 법인 감사공영제 개혁 완성

회계감사 시각변동

(下) 회계개혁 마지막 단추

올해 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회계 개혁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 세계 회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 개혁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상정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외부감사 적용대상 공익법인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기부금을 20억원 이상 모았거나, 기부금 포함 총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익법인 감사의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외부감사인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



이민우 영남대학교 교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논문 속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 계약 후 6년까지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지만, 6년 이후로는 감사대상기업과 유착 관계가 발생하면서 감사품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이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효과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감사공영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4000여 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2003년부터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도입했다.



아파트·공공기관 등 감사공영제 필요 영국·뉴질랜드 등도 감사인 지정 도입

전 세계가 지켜보는 韓 회계개혁 주기적 지정제로 투명성 증명해야

을 4년간 자율 선임하면 그다음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위탁)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감사공영제'가 회계 개혁의 완성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 범위는 차츰 넓어질 전망이다. 최종경 한공회 회장(사진)은 기부금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 사립대학 등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회계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감사공영제는 정부(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선 아파트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슈다. 한공회가 지난 2017년 발행된 9000개의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849건에 양적 개선권고가 있었고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 "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세계가 지켜보는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지정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주기적 지정제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회계 개혁은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저하는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다.

자율수입제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미국에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기업들의 평균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계속감사기간과 관련한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지난 2006년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감사업무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원상회복”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안정화’ 정부의지 확고 남북 간 대화 비판할 단계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검찰을 비롯해 청와대·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분야 부동산 문제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상승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비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승준 기자 dn1114@

AI 병실·VR 의료협진... 5G 스마트병원 눈앞

지금은 5G 시대

KT-삼성서울병원 5G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의료 서비스에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 적용된다. 5G 싱크랩으로 집도의 고화질 수술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수술실 내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비품과 폐기물을 나른다. 향후에는 가상현실(VR)로 의료협진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병실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KT는 삼성서울병원과 지난 13일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의료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는 삼성서울병원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실과 양성자 치료실 등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시범 운영했다.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5G 싱크랩을 장착하고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T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병리 진단

표준 방사선 치료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진 항암 치료법인 양성자 치료는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그간 교수 사무실과 양성자 센터 간 1km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양성자 치료 정보는 장당 4기가바이트(GB)이 고용량 데이터다.

양사가 구축한 5G 디지털 병리 분석은 5G를 활용해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병리 진단은 수술 중 때어난 조직을 병리와 교수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도보로 20분 거리를 이동해 다양한 병리와 교수진이 함께 분석하기 어려웠다.

5G 디지털 병리 진단은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와 사무실서도 병리 데이터 조화가 가능해졌다.

표훈렬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진료과장은 “하루에 500명의 환자가 찾는데 담당 의사는 10여명 정도이고 장비는 세 군데로 흩어져있어 담당 의사가 모든 환자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며 “이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성도 용이해졌고 실시간 치료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